

가정의 시테크 전략의 변화와 적용

윤 소 영 (숭호대학)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은 관리해야 할’ 자원 중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다. 시간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하며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꾸물대고 미루는 행동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배워왔다. 열심히 일하고, 시간을 아껴쓴다는 것이 생활을 지배하는 계율처럼 여기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많은 학자들은 시간을 정의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였다. 하이럼 스미스(H. Smith, 1994)는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개념을 빌어와 시간은 곧 ‘사건(event)의 연속’이라고 하였으며, 레온 크라이츠먼(L. Kreitzman, 1999)은 시간을 시계적 시간(또는 M 시간)과 행사적 시간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설명하였다. 시간의 본성에 대해 연구한 스티븐 호킹(S. Hawking)은 시간과 우주에 관한 베스트 셀러를 썼으며, 버트런드 러셀(B. Russell)이나 마이클 더메트(M. Dummett)와 같은 훌륭한 철학자들도 시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 “어떤 사물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그 안에서의 시간은 외부에서 그 사물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간보다 더 늦게 흘러간다”(예를들어 예쁜 여자들과 두시간 동안 얘기하면 그 시간은 마치 2분처럼 느껴지지만, 2분동안 뜨거운 난로위에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은 마치 두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많은 연구자들이 애써 밝히려는 시도 후에도,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촌음을 아끼는’ 시간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시간창조적’인 시테크의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즈음에 가

정의 중요한 자원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가정의 시간자원이란 기업에서의 경영시간이나 고용인들의 노동시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시간문제만 아니라 가족원의 집단적 시간개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의 시간 개념이나 시테크 관리 방식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간개념이나 시간문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사회의 시간문화와 시간개념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가정에서 시간 관리 방법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관리방법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시간 개념의 변화

1) 시간가치와 시테크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을 충고한다. 즉 시간의 중요성과 기회비용을 계산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모두 다른데, 시간가치는 같은 시간에 가치를 얼마나 창조했는지를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시간가치는 시간자원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거나,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시간낭비의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효율적 시간관리를 통하여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 Toffler)는 [권력이동(Powershift)]에서 “이제부터 세계는 빠른자(the fast)와 느린자(the slow)로 나누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속도의 경제 속에서 시간이 하나의 자원으로 여겨지면서 시간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빠른자는 살고 느린자는 몰락한다는 새로운 가치기준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기업에서부터 비롯된 “Speed 경영”이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 것이다. 기업은 신상품의 개발속도를 빨리 해야 하며, 행정서비스도 빨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혁신의 속도를 빠르게 해야한다. 국가도 빠른 자가 되어야 하고 기업도 개인도 빠른 자가 되어야 한다.

‘high-speed’ 경영이나 ‘time-based’ 전략의 한국형 시간전략으로 제시되는 ‘시테크’개념

은 경영에서 조직의 내부역량인 스피드와 외부 여건에 따른 타이밍을 살려 경쟁력을 높이는 시간중심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시테크의 핵심적 개념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첫째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압축을 달성하는 단계이고 둘째, 창조한 여유시간을 순기능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이다. 셋째, 업무시간과 비업무시간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단계이다. 비단 경영 측면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시테크는 중요한 시간관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윤은기, 1992).

우선, 시테크는 시간단축이 전제된다. 가능한 짧은 시간내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경영의 합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내에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최소의 시간, 노력, 물자를 이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강조된다.

우리 나라는 시간단축운동을 통해 지정학적인 위치가 불리한 나라 또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냉전시대의 사고방식 그리고 산업사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제일 빠른 국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세계의 리더들이 말하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 중 하나가 ‘변신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국내 IT(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사를 보면 그 변화의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1997년 PCS 휴대전화서비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서비스 첫째 6백 80만명이던 이동전화 가입자가 2002년 4월 현재 3천만명(보급률 63%)을 돌파하였으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극소수 가구에만 보급됐던 초고속인터넷이 2월 현재 8백10만가구(보급률 55.2%)로 늘어났고, 인터넷 이용자도 1992년 8만명에서 10년만에 2천4백38만명(인구대비 51.5%)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한국경제신문, 2002. 4. 22).

그러나 시간단축 운동은 우리 생활속에서 “빨리 빨리” 의식을 만들어 냈다. 우리의 “빨리 빨리” 문화에 대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빨리 빨리를 외쳐댄다는 예가 흔히 인용된다. 성수대교가 내려앉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빨리 빨리”의 조급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시테크는 타이밍(적시성)의 중요성이 포함되었다. 즉 “빨리 빨리”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사고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미리미리, 제때제때 하기만 한다면 시간이 조급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을 빨리 단축시키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적절한 시간을 요구한다. 예를들어 은행은 고객들에게 번호표를 나누어 줌으로써 업무처리를 빠르게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하려고 하며, 택배회사는 고객에

게 배달이 가능한 시간대를 물음으로써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고객들의 시간도 단축시키기 위한 시테크 방법이다.

시테크에서 요구되는 시간창조의 방법은 비단 경영 측면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시간관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2) 시간규범의 이중성

빨리 빨리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경제기적)과 부정적인 측면(조급함)이 의미하듯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적 규범을 적용시킨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며 촌각을 아껴쓰는 것을 넘어서서 시간을 창조하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시간관리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벗어나길 원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빠르게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느리게” 살기를 권장하기도 한다.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동문선)가 베스트 셀러로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도감을 가졌다. 경쟁과 속도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고자 함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경영 원리에 저항하는 의식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빠른자와 느린자가 모두 각광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간문화는 합의성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들의 시간개념이 이중적 규범을 발달시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라야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빠른 속도감이 스트레스이므로 천천히 여유를 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이중성이 상황과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되어, ‘나 중심’적 사고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현대인에게 시간의 개념을 확립시키고, 올바른 관리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사람의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해주는 시간관리 전문가나 상담가가 각광을 받는지도 모른다.

3) 시간의 연장

밤과 낮의 구분, 주중과 주말의 구분이 계속해서 모호해지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에게 이런 모호함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업무패턴, 쇼핑습관, 여가활동, 친교 관계가 바뀔 것인가? 일반 학교 또는 대학처럼 우리 삶에 대해 시간을 무기로 독재하고 있는 기관들이 변하면 일반 병원, 치과, 약국, 시청 등 여러 서비스도 이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할 것인가? 우리가 낮의 경제와 밤의 경제라는

구분에서 벗어나 시간의 구분이 완전히 없는 사회로 나아가면 상점, 전기,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 식당, 미장원 등 서비스 업체 및 여러 크고 작은 무수한 비즈니스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에 맞게 변화될 것인가?

레온 크라이츠먼(L. Kreitzman)은 “24시간 사회(24 Hour Society)” 라는 개념을 통해 과거의 시간구분 방식-낮과 밤, 아침·점심·저녁, 주중과 주말 등이 더 이상 우리 생활에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4시간 사회는 단순히 상점이 늦게까지 문을 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제약을 제거하는 것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과 더 관련이 깊다.

특히 신기술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작지만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드라마틱한 영향을 끼친다. 해외여행은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고 여행보험도 24시간 언제든지 들 수 있다.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터치 스크린이나 온라인 이미지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 등을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서점주인, 은행가, 꽃집주인, 여행사 직원, 상품 제조업자와 의류 및 여러 다른 분야 종사자들도 전자 쇼핑물을 통해 고객을 유치한다.

빌게이츠(Bill Gates)는 이런 상황을 다소 흥미롭게 <구매자들의 천국>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전자 쇼핑은 낮이든 밤이든 주중이든 주말이든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현재 사람들이 알고 있는 24시간 사회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전자문화는 삶의 방식을 재편성한다. 사람들은 장소를 옮기면서도 약속이나 주제 등에 대해 점점 또 점점하면서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한다. 전화를 걸어 예정보다 10분 정도 늦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회의장소가 바뀌었다고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서의 삶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핸드폰이 나오기 전의 세상을 생각해보라. 그때에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 예를들어 자동차 안, 또는 기차 안 같은 공간이 많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비행기마저 위성전화 장치를 서비스해준다. 사람들은 이 장치에 노트북을 연결해 팩스도 보낼 수 있다.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그 사이는 대화로 채워졌다.

새로운 변화는 전자기술이 낳은 휴대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트북 전원을 끄기만 하면 어디든 회사이다. 필요하다면 직원들은 회사가 아닌 다른 지정 장소, 예를들어 집에 머물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보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시간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2. 가정의 시테크 관리 방법

1) 중요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정하기

하이럼 스미스는 그의 책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22세때 정립한 12가지 덕목의 가치관을 설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때 지배가치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일에는 소홀하고 긴급한 일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지배가치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책을 읽는 시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만 눈 앞에서 울려대는 핸드폰 벨소리는 다른 어떤 일도 제쳐놓고 받게 된다. 따라서 나중에 책을 읽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시간을 허송하게 된 뒤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찾게될 때 가족 또는 가족의 누군가를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직장생활을 하는데 써버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게 되어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특히 가정생활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가치는 무엇인지 합의를 해야만 한다.

2) 경제원칙보다는 만족원칙 적용하기

산업부분의 경영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시간관리는 일정한 시간내에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소의 시간, 노력, 물자를 이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이 경제원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을 즐겁게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정에서의 시간은 목적하는 일에 대해 가장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가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사용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목적에 비해 수단이 지나치게 적게 사용된 경우는 이상적인 시간관리라 할 수 없다.

이와같이 가정에서는 가족원 상호의 보살핌이나 애정이 경제원칙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무리 일을 빨리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손을 보아야 하도록 불완전하게 일을 하거나 작업자가 무리하게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하여 신체에 손상을 가져와 그 일을 끝마친 후 오랫동안 쉬어야 한다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

져오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스피드 경영에서 시간단축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적시성과 가족원의 만족에 초점을 둔 시테크 방법이 요구된다.

3) 가족원의 공유시간 찾기

우리 사회도 머지않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100명 이하 소사업장의 경우에도 2002년 2월 기준으로 3.8%가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지난 반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생산측면에서 시간관리의 합리화와 소비 및 여가측면에서 변화를 예측한다. 생산측면에서 시간관리를 합리화하여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무관행의 변화, 휴가제도의 정비,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유연한 근무방식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소비와 여가 측면에서 주5일제의 도입은 연간 50일 정도의 추가 휴일이 발생할 뿐 아니라 매주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진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확대된 휴가를 얼마나 새로운 경제환경에 걸맞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주5일제 도입의 장기적 성패를 결정한다고(국민일보, 2002.4.24) 본다.

아직 우리의 여가문화가 지난날 가난했던 시절의 한풀이로 먹고 마시고 나다니며 노는 것 위주의 소모적인 소비문화이며, 주5일제 도입으로 대폭 늘어난 여가가 한풀이식으로 소진된다면 주5일제의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반감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많은 의견에서 주5일제 도입을 계기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여가문화의 창출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 5일 근무제가 근무시간과 여가시간 차원에서만 논의되기 보다는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주 5일 근무 이후 주말의 비근무시간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의 내용에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영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기혼 취업여성, 즉 맞벌이 주부는 일과 가사노동을 합해 1일 평균 9시간 31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사노동시간은 평일과 비교해 토요일 평균 7분, 일요일 평균 30분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부담으로 인한 시간제약이며, 특히 개인적인 유지

시간 및 사회문화적 시간을 줄여 가사노동시간에 할애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기혼 취업여성에게 주 5일 근무는 근무시간의 단축만을 의미하며, 전체 노동 시간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여가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족원(특히 남편과 아내)이 가사노동을 공유하는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 휴일에 한 배우자는 쉬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다른 배우자는 밀린 집안 일을 계획한다면 그 부부의 공유시간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찍이 맞벌이 부부의 노동부담의 문제에서 공정한 노동분담이 주장되어 왔다. Togetherness(함께 공유하기)를 위해서는 “One up, Both up!”의 실천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문숙재·윤소영, 2000). 즉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일어나야 하고, 한 사람이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앉아서 쉬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이 공정한 노동분담을 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또다른 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가정의 집단적 생활시간 관리에서는 가족원의 공유시간을 늘리는 차원의 시테크 방법이 요구된다.

4) 24시간 관리하기

정보화는 시간관리 측면에서 시간창조력을 요구하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응하길 요구한다. 그리고 정보화는 시간이 연장된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재택근로를 가능케하여 이동시간을 줄였으며, 재택구매나 홈쇼핑은 구매나 업무시간을 단축시킨 것 뿐 아니라 구매시간과 업무시간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동시에 24시간 개방된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증대시킨다. 작업장소를 가정안으로 옮겨오면서 근무시간과 여가시간, 그리고 가사노동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시간 제약 없이 구매나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기르고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익혀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평일과 휴일에 쇼핑하러 가기 힘든 여건상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는 24시간 이용가능한 홈쇼핑이나 인터넷 구매가 필요하지만 최근들어 주부들의 습관적으로 홈쇼핑을 즐기는 “홈쇼핑 중독”현상(한국경제신문, 2001.12.27)은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홈쇼핑 경험이 있는 주부 2백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전체의 10.1%가 1년에 90회 이상 제품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1주일에 최소 2번꼴로 홈쇼핑에 몰두한다는 계산이다. 제품구입 동기와 관련해서는 21.8%가 "시청중 즉석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돼"라고 응답한 것으로, 충동구매가 많다는 얘기다. 1주일에 2번 이상 홈쇼핑을 하는 것은 중독에 가깝다고 볼 때 많은 주부들이 쇼핑하는 요령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4시간을 활용하는 관리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자원으로서 시간개념이 연장된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계획적인 구매행동과 시간구분이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한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3. 가정의 시테크 관리 적용

가정 역시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 시테크 관리 방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법 4가지를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가정의 시테크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나 직업들을 소개함으로써 가족자원경영학적 학문의 발달과 연관성을 논하려 한다.

1) 시간절약 상품의 개발

시테크 전략에 부응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문명의 이기들이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현대문화를 '시간이 기근되는 문화'로 표현되기도 한다. 생산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는 물론 3분 세차장이나 30분 세탁소니 해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이른바 '시간산업'이나 '시테크 상품'도 시간이 기근되는 문화가 가져온 신종 산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산업이나 시테크 상품을 몇가지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복합기능을 통해 시간단축효과 극대화.** 예를들어 마사지와 클렌징, 에센스 기능을 함께 지닌 화장품은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사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바쁜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 ② **과정의 간단화 요구.** 인스턴트식품이나 식기세척기 등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되던 영역이 간단한 몇 번의 조작으로 가능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one-touch screen service나 자동판매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음료 자동판매 뿐 아니라 각종 식품류, 담배, 티켓(승차권, 입장권, 식권 등), 기타 일상용품(우표, 엽서, 휴지, 잡지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가 등장하였으며 동전교환기나 coin-TV, parking-meter 등의 서비스도 이미 상품화되어 있다.
- ③ **이동시간의 단축.** 현대인의 이동시간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거나 이동시간에 동시적 활동이 가능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홈쇼핑이나 홈뱅킹 뿐 아니라 take-out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coffee 전문점의 포장 기술의 변화도 이에 속한다.
- ④ **대행서비스의 각광.** 최근 급부상하는 커서비스 업종이 대표적이며, 이밖에도 바쁜 가정주부들을 대신해주는 가사 대행서비스 상품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제사음식전문쇼핑몰이나 쇼핑대행 서비스 상품이 있다.

이러한 시간산업은 시간단축과 적시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종 산업으로서 가정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시테크 전략 중 하나이다. 중요한 가족자원의 한가지인 시간자원을 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가정의 시간자원을 잘 이해하여 시테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2) 시간관리 전문가 배출

미래 사회의 각광받는 직업군 중 많은 영역에서 '상담가'의 역할이 예측된 바 있다. 현재의 문제영역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법을 제안해 주는 역할이라고 볼 때, 우리의 가정생활에 시간관리 상담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가족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계획과, 연장된 시간개념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생활설계의 차원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는 가족자원경영학의 학문적 입지와 연계되며 가정의 시간관리 능력을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개인적인 경험으

로는 “한국리더십센터”에서 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때 학문적 배경에서 시간관리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전문적일 것이라는 자극을 받은 바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어떻게 전문성으로 개발하여 사회와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문숙재·윤소영(2000). 「결혼과 노동」. 교문사.
- 문숙재·채옥희(1986). 「가사노동」. 신광출판사.
- 윤은기(1992). 「시테크: 시간창조의 기술」. 유나이티드컨설팅그룹
-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
- H. W. Smith, 김경섭 · 이경재 (역)(1998)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 김영사.
- L. Kreitzman, 한상진(역).(2001). 「24시간 사회」. 민음사.
- 국민일보, 2002.4.24 [www.kukminilbo.co.kr]
- 한국경제신문, 2001.12.27 / 2002. 4. 22 [www.hankyung.com]